

## 아산,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아산이 살다간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김구한(아산리더십연구원 연구교수)

세계 경제는 다시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로 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20세기 한국경제를 일으킨 사람 중의 한 명이 아산 정주영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어려운 시대, 우리가 아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때문이다. 아산을 다시 역사 속으로 불러내는 것은 그가 해낸 성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유효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아산 ‘읽기’와 ‘이해’는 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시대에 대한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독특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근대와 현대로 구획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가 아산이 헤쳐 간 역사의 무대였다. 이 시대의 전환은 사회 모든 분야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격변의 시기였다. 올곧은 아산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시대정신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될 때 그 사람의 행보가 제대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산은 우리의 삶 속에 ‘아산 정주영’으로 있지 않다. 아산은 하나의 ‘아산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림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인물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창업주’ 또는 ‘재벌’이라는 한 측면만이 아닌 그 인물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그 인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논의를 넘어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장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거시적으로는 한국경제발전의 큰 틀 안에서 그의 능력이 이야기되었다면 이제는 미시적 방법으로 그러한 성취나 기림이 타당한 것이며, 정당한 평가인가에 대해서도 열린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삶의 폭이 큰 사람이었다. 단순히 기업가로만 이해되는 아산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흔적을 남긴 사람이기에 기업가라는 한 분야만을 가지고 아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살다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아산을 특출한 개인으로 보기 이전에 그가 속했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산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아산을 재해석하고 아산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의 시대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인물과 그의 시대’에 대한 연구이다.

아산이 특출한 기업가였지만 그의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특출함이나 성공을 맥락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과 함께 ‘그의 시대’를 보아야 한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매우 특별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농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주가 되는 상공업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경험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식민 강점 시대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는 농촌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식민시대의 종언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이념의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결국 이 땅은 냉전의 최후 보루로 민족 상흔이 아로새겨진 이념 대립의 실험 무대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착·고정화된 외세 의존성, 계몽과 진보의 이름으로 전개된 ‘문화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의 갈등과 환란’, 경이로운 압축 근대화, 개발 독재와 산업화 열정의 결합,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갈등, 정경유착, 성장과 분배의 갈등, 기업국가와 노사문제, 지구적 규모의 국제 간 교역과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등, 이 모든 격동과 전환이 압축적으로 펼쳐진 시대가 아산이 살다간 시대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압축적이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 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한 주체들은 농본주의적 심성에 기초하면

서도 압축적 성장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했던 ‘박정희를 비롯한 일군의 관료들이었다. 1960년대 경제정책을 기획 운영했던 관료들(발전국가론에서 주목하는 주체), 정부 주도 경제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이후 ‘재벌’로 성장하는 기업(가)들,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노동계(노동의 축적), 이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만들어온 주체들이다. 현재의 모순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가 살다간 시대를 조망하는 것은 미래 한국 역사를 튼실하게 하는 주춧돌이 된다.

따라서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모든 유형의 관행들이 퇴색하고 재구성되는 격렬한 부정이 불안 속에 전개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의욕이 희망 속에 꿈틀 거렸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문명적 차원의 전환 시대였다. 아산의 일생을 담아낸 시대는 이 전환기적 조건들이 압축적으로 얹혀 격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해체와 수립의 격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 간 아산의 행보는 경제 범주와 관련하여서는 가히 독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시대에 대한 아산의 대응 방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는 것도 아산연구의 가장 큰 지향점의 하나이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와 그 행보를 살펴보는 것이 아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산의 삶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승만 독재, 4.19의거, 5.16 군사 정변 등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사업이 없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인물이다. 따라서 아산은 경제 활동의 기본을 ‘나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로 투철한 국가관을 드러내었다. 아산의 ‘시대인식’은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시공간은 근대 100년 동안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은 그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성장의 두 축을 형성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였고, 경제권

력은 정치권력에 힘입어 자신들만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갈등들의 뿌리는 애초 한국자본주의의 출발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 발전을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의 압축 경제 성장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애매모호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모순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한 인간의 면모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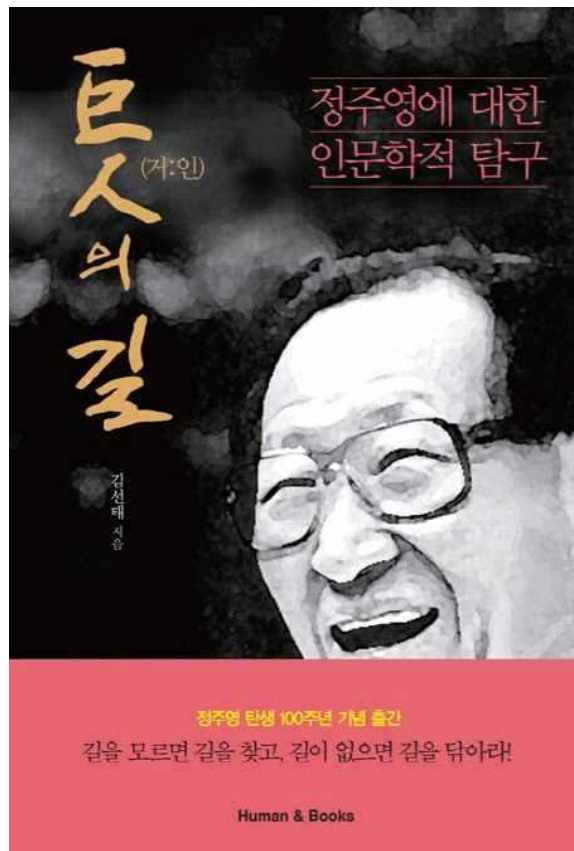
‘시대정신’은 오늘날의 철학적 정의보다는, 단지 그 시대에 특유의 사회적 상식을 가리키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대의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동향 등으로 해석한다. 아산이 살아간 시대도 그 시대의 보편성과 객관성, 민족이 처한 특수성 등이 바탕이 되어 한 인물의 자아가 형성되었다. 그 자아가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겠다는 욕망과 맞물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립했던 것이다. ‘시대정신’은 한 사람을 올곧게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 점이 아산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는 이유이다. 험난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아산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노력으로 극복했는지를, 나아가 그 성취는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적확(的確)한 평가가 중요한 때이다.

우리가 아산 ‘읽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산과 관련하여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아산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넘어서는 저작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본다. 많은 사람들은 아산 ‘읽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아산 ‘이해하기’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산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제를 거울삼아 현재에 충실하며 내일을 살아가는 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아산 ‘읽기’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 책세상에 나타난 아산 ‘읽기’와 아산 ‘이해’하기

〈편집자 주〉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는 2013년까지 출판된 아산관련 도서(단행본 중심)의 해설집을 작성하여 아산 관련 도서의 출판 경향 및 연구 방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 여기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아산 관련 서적 중에서 아산을 이해하기 쉬운 도서를 중심으로, 위기의 시대에 아산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선태, 『거인의 길』, 휴먼 앤 북스, 2015.

## 1.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나?

“정주영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에서는 아산 정주영의 삶의 궤적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효자 가출하다」, 「근검과 신용」, 「신화의 시대」, 「거인의 길」 등 4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5부에서는 ‘효, 성실, 검소, 신용, 신념, 견문, 도전, 배려, 낙관, 순수’ 등 모두 10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아산 정신의 밑바탕을 분석하고 있으며, 책의 말미에 간략한 연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제5부 「정주영이 중시한 삶의 덕목들」이다. 정주영이 이룬 가치 있는 성취들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힘입은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사업을 통해 일군 업적은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내면화한 덕목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주영이 중시한 삶의 덕목들’은 평생 흔들림 없이 아산 정주영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불세출의 기업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내적인 원동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정주영의 사회적 성취는 효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의 효심은 전 생애를 통틀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가령, 1984년 유명한 유조선공법(정주영공법)을 만들어내며 간직한 서산농장을 두고 “아버님께 바치는 나의 존경의 헌납품”이라 말한 데서 그 효심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효심이 깊어지면 그것은 단지 부모에 대한 공양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주영은 효심을 사회에 대한 봉사, 나라에 대한 헌신의 자세로 발전시켰다. 가정에서는 화목을 유지했으며 동시에 사업보국의 뜻을 세워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 했다. 효는 정주영이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되돌아가 자문할 수 있었던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자 기본이었다.

정주영의 기본적인 인성은 ‘성실, 검소, 신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가 온갖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성실·검소하고 신용을 중시하는 기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성실은 정주영이 평소 가장 강조한 덕목이었다. 그는 “성실함에 내 삶의 모든 덕목이 묻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실함으로부터 정주영이 내면화한 모든 덕목이 시작되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성실이라는 것을 노력하고 실천하며 노동하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정의한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어서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는 기하학적으로 집대성된다. 정주영

은 인간은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힘을 내는 존재이며,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옆도 뒤도 안 보고 그저 죽자고 일을 했더니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또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건설 회사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다.” 정주영의 이 언급은 성실이라는 덕목이 그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정주영의 사업가적 성정은 크게 ‘신념, 견문, 도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주영은 성실하고 검소한 인성적 바탕 위에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얻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탁월한 사업가적인 성정을 발휘했으니 어떤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해보거나 했어?”라는 말은 그러한 신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 10%를 가지고 일해 왔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정주영에게 신념이란 목표를 향하여 결단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그는 일단 일이 시작되면 그것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린 것이지 일 자체의 어려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능력이란 대개 비슷하므로 누구라도 신념에 노력을 더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그가 이룬 성취의 힘인 것이다.

정주영의 인격적인 심성은 ‘배려, 낙관, 순수’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사업을 통해 그가 추구한 것은 부(돈)가 아니었다. 자신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가족을 위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만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식주를 얼마나 잘 갖추고 누리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주영이 말한 좋은 영향은 배려하는 태도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일하고 때로 배우며 어울렸다. 일하는 직원들은 부하가 아니라 미래를 같이 짊어질 동반자였다. 정주영은 배려심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기계화, 산업화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되기 쉽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외부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삶을 대하는 아산 정주영의 근본적 태도였다.

## 2.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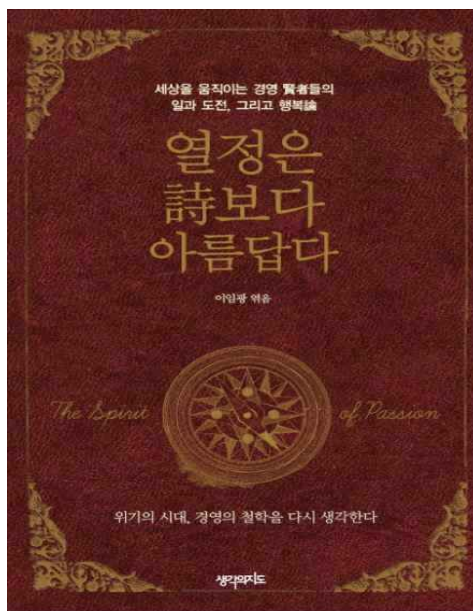
이 책은 정주영의 자서전을 토대로 그의 삶과 업적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정주영의 행적과 리더십을 대상으로 하는 대개의 자기계발서가 자서전의 내용을 편집하고 다듬는 수준에서 그치는 반면, 이 책은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서전의 주요 일화 혹은 정주영의 연설문과 같은 공식적 자료를 매우 풍요롭게 해석해내고 있다. 제대로 된 평전의 수준에 이른 이 책을 정주영의 자서전과 함께 읽어 나가면, 그의 삶과 정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리더십을 덕목이라는 대중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는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연구자)이 정주영의 리더십을 두고 말하는 포부, 열정, 창의력, 진취성, 추진력, 유머 감각, 우직함, 솔선수범, 신속한 일 처리 능력 등은 ‘효, 성실, 검소, 신용, 신념, 견문, 도전, 배려, 낙관, 순수’ 등 10가지 덕목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독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개념화가 훨씬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고 정교한 야생의 사고를 키운 인물이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자 산업화의 선두주자이며 맨손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 미증유의 거대 시장을 발굴해낸 불도저 같은 개척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정주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개인으로 판단될 수 없는 일종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개인적 담지자로 이해된다. 이 책은 이처럼 아산 정주영을 불굴의 개척자로 이끈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에 따르면, 정주영이 평생에 걸쳐 확립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주영이 말하는 확고한 신념과 노력의 실체는 그의 삶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차원이 다른 행동을 이해하려면 삶이 그의 내면에 새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주영은 주위 환경의 수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을 이끌어냈다. 혹자



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혁신의 동기는 정주영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전제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저자의 동기이다. 정주영의 삶의 궤적을 좇아 그의 내면을 다소나마 이해한다면, 성공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이 10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임광 엮음, 『열정은 詩보다 아름답다』, 생각의 지도, 2008.

## 1.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나?

이 책은 이 땅을 대표하는 기업가와 경영자들의 언행을 노래와 시의 형식으로 엮어내었다. 저자는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그들이 얻은 고뇌와 깨달음, 삶에 대한 진중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바꾸어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은 장사꾼의 알량한 재치나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라 사업과 일,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출하고자 했던 기업가의 치열한 경영정신을 담았다. 여기에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故)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이견희, LG그룹 창업주 고(故) 구인회, LG그룹 회장 구본무, 안철수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숭한 아픔과 상처를 닦아 가며 키워낸 경영정신과 철학의 노래 126편이 실려 있다. “위대한 것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격언에서 시작하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삶에 대한 열정이 시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점을 전하고자 한다.

총 5장 구성으로 된 이 책에서 시 형식을 빌려 기록한 아산 정주영의 언행은 모두 여섯 편이다. 「시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 「운」, 「기업가의 소망」, 「신용」, 「생각하는 불도저」 등 이 여섯 편의 시적 잠언에는 열정, 성실, 실천과 같은 덕목이 지닌 가치와 삶에 대한 아산 정주영의 사유가 집약되어 있다.

「시간」이라는 시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시간은 한순간도/정지라는 것을 모른다./일단 지나가 버리면/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이다. 정주영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자기 앞에 놓인 시간을 꼽았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형적 재화다. 시간은 기회가 나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는 죽비다. 누구나 사는 동안 역사에 남을 정치가, 학자, 혁명가가 될 수 있고 음악가, 화가도 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이와 같은 정주영의 사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식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가능성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다. 이미 주어진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정주영은 이 두 요소야말로 삶의 진정한 토대라고 생각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에서는 “내가 평생을/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그날 할 일 생각에/기대와 흥분으로 설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삶을 괴로움의 연속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이해와 달리 아산 정주영은 삶 그 자체가 본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주영의 이 생각을 이미 성공하여 배부른 자의 여유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성공 신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아산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실패를 시련으로 규정내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시종(始終)의 관념을 내재한 실패를 시련이라는 과정적 성격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역설적으로 그는 실패마

저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깨달음이자 동기로 변용했다. 이러한 정신적 승화가 가능했던 것은 삶을 즐겁고 재밌는 놀이처럼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의 아침은 언제나 소확고 소풍날 아침.”이라는 구절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산의 사유이다.

「운(運)」이라는 시편에서는 「시간」과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에서 나타난 아산의 사유가 종합되어 있다.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그것이 좋은 운이다. (·중략·)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나쁜 운이 들어올 틈이란 없다.”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은 이미 즐겁고 행복한 삶이다. 아산은 그러한 삶 속에서 스스로를 자본가가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로 규정 내리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그의 사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면이 있다. ‘부유한 노동자’의 ‘부유한’이라는 형용사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척도로 파악할 수 있는 수량적 가치를 뜻하기 이전에 자신이 세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혹은 그 역동적 과정에서 오는 창조적 기쁨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유한 노동자’라고 규정내린 정주영의 언급은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의 천박한 자기자랑 따위가 아니라 창조적 본성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노동과 도전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점을 역설하는 발언인 것이다.

「기업가의 소망」에서는 무한에 대한 정주영의 욕망이 드러난다. “기업가는/자신이 일으킨 사업이/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란다.”에서 기업은 단순히 물질이나 재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의 삶과 존재를 무한의 세계로 이끄는 정신적(마치 예술작품처럼) 매개체로 승화된다. 「신용의 위력」에서는 “신용이 곧 자본이다./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가고/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열쇠가 바로 신용이다.”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은 주관알을 덮고 일해야 할 때도 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신용을 잃으면 끝장이다.” 이 엄중한 메시지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즉 관계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용이라는 무형의 관계성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여기에 그 기업이 이룩해 갈 미래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불도저」에서는 정주영의 인생관이 요약되어 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행동은 습성을 만들고/습성은 성품을 만들고/성품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살아생전 아산 정주영의 별명은 ‘불도저’였

다. 사실 이 별명에는 아산의 경영 스타일을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육중한 쇠뭉치 몸집으로 덮어놓고 밀어대기만 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아산은 학식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나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자신은 어떤 일에도 결코 덮어놓고 덤벼든 적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생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주영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참다운 지식으로서 생각의 가치는 오직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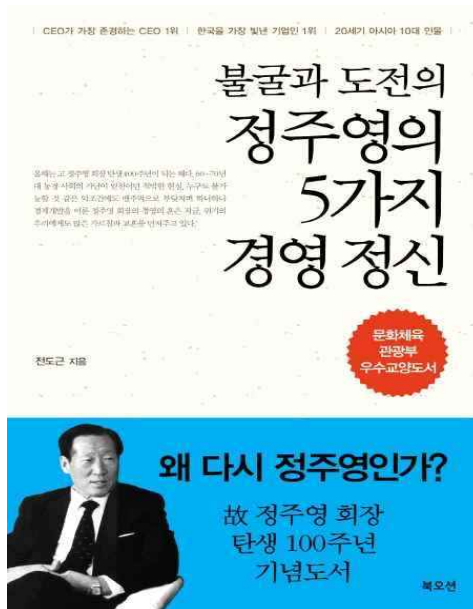
## 2.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나?

이임광이 쓴 『열정은 詩보다 아름답다』는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 현자(賢者)들의 일과 도전, 그리고 행복론”을 대중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시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이 책에 실린 기업가들의 경영정신이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기업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침과 전략, 혹은 삶에 대한 현자의 절대적인 진리여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했거나 완성해가고 있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인 “열정은 詩보다 아름답다.”에서 저자는 ‘열정’이라는 이름의 실천의지를 통해 창출된 것이 바로 경영정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가의 철학과 사유가 시인들의 시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의 생계와 터전을 일군다. 대중이 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의 일으켜 세운 업이 삶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직원의 수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윤과 기업의 존재 이유를 맞바꾸는 천박한 방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가와 뜻있는 경영자는 전략보다 크고 확고한 경영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신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고객과 주주로부터 신뢰를 얻어 다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혹자는

저자에게 요즘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의 시집을 낸다면 못마땅해 하고 차라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영 전략서를 내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아포리즘에 가까운 시집 형식을 빌려 뛰어난 기업가의 경영정신을 대중화하고자 했다. 그는 이 책을 저술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장사꾼의 상술이 아니라 고뇌하는 기업가의 정신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고 싶었다.” 이임광의 책 『열정은 詩보다 아름답다』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에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그 전략의 버팀목이 되는 경영정신과 철학이다. 이 책에 실린 기업가의 언행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일으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이 현장의 경험과 숭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정수(精髓)이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득한 사유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전략전술로는 이르지 못할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아산 정주영의 언행은 「시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 「운」, 「기업가의 소망」, 「신용」, 「생각하는 불도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여섯 편의 시적 잠언에는 열정, 성실, 실천과 같은 덕목이 지닌 가치와 삶에 대한 아산 정주영의 사유가 집약되어 있다.



전도근, 『불굴과 도전의 정주영의 5가지 경영 정신』, 북오션, 2015.

## 1.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나?

이 저서는 정주영의 경영 정신을 ‘창조정신, 도전정신, 진보정신, 성공정신, 기업가정신’ 등 다섯 가지 정신으로 나누어 살펴면서 그것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재해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저성장의 경제 불황 속에서 목표를 향한 열정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어려운 현실에 놓인 이들에게 정주영의 성공 신화를 들려줌으로써 난국을 타개할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제1장의 주된 내용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정주영의 창조정신이다. 시대의 역사적 도약은 사회의 규범 안에서 생각하고 기존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을 즐기는 이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물과 현상이 지닌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여 현실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삶을 보다 운택하게 가꾸어나갈 것을 독자에게 권한다.

제2장의 주된 내용은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정주영 특유의 도전정신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으면서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봐, 해봤어?”라고 말했다는 정주영의 일화는 유명하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긍정적 세계관과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도전하는 열정,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즐기고자 한 마음가짐은 아산 정주영의 도전정신을 이루는 뼈대이다. 저자는 현실을 대하는 정주영의 이 도전적 자세를 거울삼아 독자에게 서툴더라도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제3장의 주된 내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주영의 진보정신이다. 정주영의 성공은 위기가 닦쳤을 때 불만을 토로하거나 포기해버리는 대신 도리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한 시도가 가져온 결과이다. 저자는 비록 낭만적일지언정 운명을 바꾸는 기회는 꿈을 가진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지런함이 명석함을 이긴다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제4장의 주된 내용은 긍정으로 일어서는 정주영의 성공정신이다. 아산 정주영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막대한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의 힘, 바로 그것이었다는 저자의 말은 이 정신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긍정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의 근원이며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의 원동력이다. 특히 이 장에서 저자는 정주영의 성공 신화가 돈만이 부의 척도가 아니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그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한다는 특유의 윤리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아산 정주영에게 배워야 할 기업가 정신이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리더십은 흔히 우두머리가 되어 대중을 이끄는 자의 자질과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주영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력자의 도움을 중히 여기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일만큼이나 소통의 과정과 힘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신용이 기업을 키우는 자본이자 근원적인 재산이라는 정주영의 신념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못사람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사유의 발현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적 가치인 다양성의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 2.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나?

고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시대에 “왜 다시 정주영인가?”라는 물음에서 기획된 이 저서는 대중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주어진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주영의 역동적인 삶과 정신을 소개하는 자기계발서이다. 저자의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풍족하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것이 더욱 강력했으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에너지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 발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역설의 교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정주영의 삶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정주영은 가난하게 태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오히려 없음과 부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무모하고, 무리하고, 무계획적인 3무(無) 정신으로 전환하여 삶을 긍정하고 위기를 극복해낸 창조적 성공 모델이 정주영의 삶이다.

경영철학으로서 아산정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리더십의 체계를 대중적으로 쉽게 재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아산의 리더십을 잠언 형식의 어구로 요약하고 그의 일화를 대중적인 어법을 풀어내는 식의 자기계발서는 아산의 자서전이 출간된 이후 지나치게 양산된 측면이 없지 않다. 동일한 일화를 토대로 하더라도 아산정신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해석이 결여된다면, 자칫 자서전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특히 정주영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계발서 대부분은 대중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아산 정신의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오히려 그의 정신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성급하게 환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격의 자기계발서는 아산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이 지닌 특징들을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나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저서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아산정신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구성요소들로 ‘해체’된 채 자칫 난잡해 보일 수 있다. 경영자로서 아산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하고 아산정신의 근본적 이념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 만일, 아산의 경영 정신이 지닌 각 요소의 긴밀한 연속성과 총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자기계발서의 양산이 거듭될수록 아산정신은 점점 ‘추상화·기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저서 또한 이와 유사한 한계를 공유한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가 그러하듯이 이 저서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한 이들을 겨냥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저자의 인식이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 책은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위축되어 있는 사람, 꿈을 잃어버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싶은 사람, 창조력을 배우고 싶은 사람, 자신감을 상실하여 암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끝없는 도전’과 ‘마르지 않는 열정’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기 위해 집필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실패라는 삶의 부정적 과정이 개인의 내적인 나약함에 의한 것임을 유달리 부각한다. 자기계발서의 주된 독자층이 20대의 청년과 30대의 중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저서가 과연 그들의 정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그러한 인식을 통해 규정되는 아산의 리더십과 정신이 대중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시대에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공감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아산 정신의 요소를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문현, 『정주영은 살아있다』, 솔, 2015

## 1.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나?

이 책은 정주영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 수록된 주요 일화를 대중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아산의 경영 철학과 정신을 전하고자 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각 장마다 십여 개 내외의 어록과 관련 에피소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한국 경제의 초석을 놓은 아산 정주영의 자신감 넘치는 삶을 보여준다.

제1장에서는 도전의 리더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룬다. 함경남도 청진에서 제철소와 항구를 만드는 공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출하여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어릴

적 정주영의 이야기에서부터 최종학력이 소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신문에 실린 사설과 주요 기사를 빠짐없이 읽으며 남다른 박식함과 문장력을 지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가 인천에서 막노동을 할 때 목격했던 빈대의 생리를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 등이 가벼운 문체로 실려 있다.

제2장에서는 작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일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던 아산 정주영의 신용의 리더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룬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주인의 신뢰를 얻고 쌀가게를 물려받았으며, 믿을 만한 청년이라는 신용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일굴 수 있었다는 이야기, 1953년 고령교 복구공사를 하면서 겪었던 시련,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의 첫 번째 일거리로 태국의 파타니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던 일, 1980년대부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후원회장을 맡은 정주영이 광주협의회를 방문하고 6개월 쯤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광주 지역 회원 수백 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며 무리한 일정을 감행했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제3장에서는 시련이라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정주영의 긍정적인 마음과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의 리더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룬다. 1942년 기업 정리령에 따라 아도서비스를 맥없이 빼앗긴 정주영이 다시 광산업을 시작하면서 위기를 넘긴 이야기에서부터 1967년 포드사와 자동차 조립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던 당시의 이야기,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렸으며, 어려운 일을 피하다보면 쉬운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일화,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갈하며 조선소와 유조선 건조를 동시에 진행했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제4장에서는 아산 정주영의 창의의 리더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룬다. 1953년 겨울 부산에 위치한 유엔군 묘지에 잔디를 깔아달라는 유엔군 사령부의 긴급 요청을 받고 보리밭 수만 평을 매입하여 그곳을 불과 며칠 만에 파릇파릇한 잔디밭으로 바꾼 이야기에서부터 1967년 세계 굴지의 댐 건설회사인 일본공영의 일개 하청업자였던 현대건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심사가 끝나고 승인까지 난 소양강댐 공사를 콘크리트 중력댐에서 사력댐으로 바꾸어 진행했던 일, 대자연과의 사투 끝에 승기를 잡았던

1970년대 말 서산 간척사업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일도 쉽게 여기면 또 한없이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사고할 것을 강조했던 그의 삶이 축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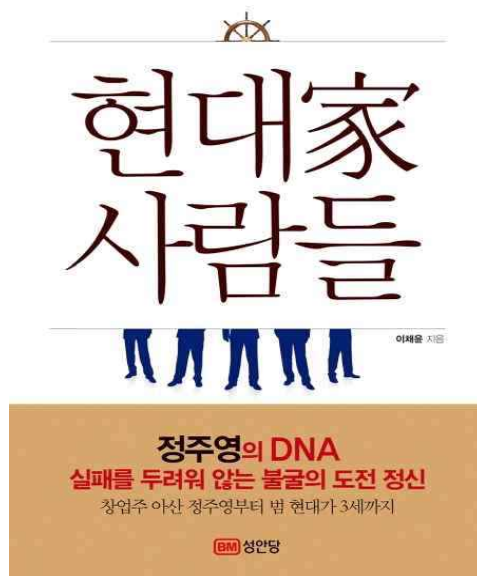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업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고민했던 아산 정주영의 이타의 리더십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다룬다. 세계 최대 역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 때 한국 경제를 돕기 위하여 모든 물자를 국내에서 가져다 썼던 일이라든지 ‘자동차는 바퀴 달린 태극기’라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시작한 자동차 산업과 수지타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의료 취약 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이루어진 병원사업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 2.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나?

이 책의 저자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현대그룹 문화실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 프로젝트의 홍보 기획을 맡는 등 현대 그룹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의 홍보 전략을 담당해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주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등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러한 강연경험을 살려 정주영의 삶과 정신을 대중적으로 풀어낸다. 독자가 아산 정주영이라는 인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에피소드에 가벼운 상식을 접목시켰고 다양한 사진과 캡션을 곁들이고 있다. ‘도전, 신용, 긍정, 창의, 이타’의 5C로 아산 정주영의 경영 철학을 정리하여 그의 리더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책에 따르면, 2006년 11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의 영웅 65명을 발표하면서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정주영을 선정했다고 한다. 『타임』은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을 아시아의 영웅으로 등극시키며 다음과 같이 선정사유를 밝히고 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은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 ... 중략 ... ) 아시아의 위대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인 그는 빈곤에 시달리던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1977년에는 경영학의 태두이자 미래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피터 드러커 교수가 내한기간

중 짬을 내어 정주영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는 “정주영은 많은 불확실성과 위협요소, 난관으로 가리어진 미래의 사업 기회를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간파해내고 이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리더십과 결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주창하고 가르쳐 온 기업가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인데, 전후의 황무지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한국경제를 선두에서 이끈 정주영의 독특하고 위대한 기업경영 사례에 대해 연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1960년대 세계은행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한국의 첫 번째 대륙종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산업 관계자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첫 번째 한국산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경쟁자들이 코웃음 칠 때 한국에서 최초로 유조선을 만들었던 인물, 아산 정주영.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산의 업적과 삶, 그의 경영이념에 담겨있는 정신과 철학적 사유의 가치는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아산의 삶에서 가장 매력적인 일화를 골라 나름의 구성원리에 맞춰 배열하고 그 일화의 정수를 어록으로 정리하여 아산 정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주영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 수록된 일화를 재편집하는 정도로 반복하여 수록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쉽다. 아산 정신의 연구사에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아산의 자서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일화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아산 정신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채윤, 『현대家 사람들』, 성안당, 2015.

## 1.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나?

이 책은 정주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정주영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아산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이 그의 후예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핀다. 이 책의 시발점은 한국 산업화의 역사가 60년을 넘어서면서 3세대 경영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객관적인 사실(현상)에 있으나 저자는 정주영 일가의 역사와 그의 2세와 3세의 삶의 궤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정주영식 자기계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3대에 이르는 정주영 일가의 파란만장 일대기(스토리텔링)이지만 각 장의 말미에 다시 정주영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팁을 수록하여 정주영식 자기 계발서의 일종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책 내용의 흐름은 크게 3부에 걸쳐 ‘아들—손자—아버지’의 세대 순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나 3부를 먼저 읽은 다음 1부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제1부 「아들들의 시대」에서는 3장에 걸쳐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룬다. 정주영이 정계에서 입지를 굳히는데 실패한 이후, 정몽구, 정몽헌 등 2세대가 기업 경영의 전면에서 나서면서 현대그룹은 격랑에 휩쓸린다. 특히 2000년에 있었던 ‘왕자의 난’은 범 현대가를 분열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2001년 3월 정주영이 타계함으로써 그룹 해체와 분화는 가속화되었으며 현대그룹은 창업주 정주영의 2세들이 경영하는 직계 그룹과 정주영의 형제들과 그들의 2세들이 경영하는 방계 소그룹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운명을 겪었다. 여기서 저자는 정몽구가 아닌 정몽헌을 후계자로 지목해야 했던 정주영 회장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배경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정몽헌이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외유내강적 리더십의 가능성,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장자 정몽구가 심기일전하여 독심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며 일취월장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다룸으로써 정주영의 리더십이 후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 외 남북경협사업 관련 대북송금 특검에 따른 현대그룹의 경제적 위기와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 형제들의 방관 속에서 정몽헌 회장이 2003년 8월 투신자살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무주공산이 될 뻔했던 현대그룹을 지켜온 현정은 회장의 리더십과 정몽준의 정치적 가능성도 자세

히 소개한다.

제2부 「3세 경영시대」에서는 범 현대가의 또 다른 비상의 시기로서 해외 유학을 통해 국제 감각과 경영을 제대로 배운 창업주의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과정과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그룹은 창업주가 기반을 닦고 2세들의 활약으로 전문화를 이룬다. 현대그룹의 경우에도 정몽구의 자동차그룹을 비롯하여 정몽준의 현대중공업그룹, 정몽근의 현대백화점그룹, 정몽윤의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등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역사가 60년을 넘어서는 지금의 시대는 3세대 경영의 태동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미 현대백화점그룹은 정몽근 회장의 자제들인 정지선, 정교선 형제가 경영하고 있고 만형격인 정몽구의 장남인 정의선도 3세 경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정주영 일가 특유의 밥상머리 교육의 전통에서부터 다른 그룹에 비해 평범하고 소박한 범 현대가의 혼맥, 현대가의 여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후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3세 경영의 선두주자인 정의선의 성공적인 경영 성과와 포스트 정몽구 체제의 가능성 등을 고찰한다.

제3부 「아버지의 시대, 현대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아산 정주영과 그의 형제들이 현대그룹을 일으키고 한국 경제의 초석을 놓는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여준다. 네 번의 가출 끝에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던 정주영의 청춘, 이른바 현대그룹의 태동기에서 시작하여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고 현대건설을 시작했던 창업기, 신용과 독심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며 자신의 경영이념을 확립해나갔던 성장기, 대북 사업과 통일의 비전을 세우며 정치 인생을 꿈꾸었다가 끝내 뼈아픈 실패에 이르는 말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2.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나?

이 책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창업주 정주영이 현대그룹을 창업하고 그의 후예들이 범 현대그룹의 일가를 이루면서 정주영의 유지와 기업가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역동적인 여정이다. 이 여정 속에서 저자가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정주영 정신으로 되돌아갈 필요성이다.

“왜 정주영인가.”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정주영은 우리나라 1세대 기업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인이었다. 그는 불세출의 경영자이면서 최고의 아이디

어맨이었고 세기의 기인이었다. 세계 기업의 역사를 들추어보아도 정주영처럼 많은 일화와 역발상의 사례를 쏟아낸 인물은 별로 없다. 정주영의 경영업적을 살펴보면 스티븐 잡스를 능가하는 창의성과 불굴의 도전정신, 진취적 기상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977년 피터 드러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주영을 만나자마자 ‘정주영식 경영’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렸다.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경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머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참 기업가정신은 머리가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겁니다. 정 회장님은 그런 점에서 용기를 타고난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모험과 창의적 정신이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라 하였는데 정주영은 바로 이 기업가정신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2014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주영의 13주기를 앞두고 정주영식 기업가정신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정주영의 창조적 사고, 도전과 긍정의 캔두리즘, 세계 지향의 글로벌 마인드, 신뢰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 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산 정주영을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탁월한 경영자로 만든 것은 기발한 발상과 창의성을 곧바로 사업으로 연결 지어 실현시킨 실천의 힘이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그는 한국 경제의 역사이자 증인이었다. 그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으로 현대 그룹을 창업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대그룹으로 일으켜 세운 개척자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이다.

정주영이 창업한 현대그룹은 한국 최고의 기업군으로 성장해서 그 명성을 전 세계에 떨쳤다. 그러나 불안정한 후계 체제를 겪으면서 숭한 자중지란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그룹은 범 현대가로 분할되면서 한국 최고 기업군의 자리를 삼성에게 내주었다. 비록 형제간 갈등은 있었지만 정주영이 남겨 놓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주영 시대 이상으로 더욱 커졌다. 아들들이 이어받은 5개 주요 그룹은 각 분야에서 훌쩍 성장했으며 동생들이 이어받은 기업들도 독자 영역을 구축했다. 이 책이 가진 특징은 바로 이처럼 정주영 시대 이후에 일어난 현대그룹의 이야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동시에 대중적인 어법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산 정주영의 경영 철학과 정신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발전되는지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